

삶의 눈맞치 [目的]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 회장)

몸과 맘의 **제나**(자아, ego)는 세상의 아버지가 낳아 길렀다. 그러나 자라서는 나의 삶을 스스로 살아야 한다. 삶에 있어선 땅 위 하늘 아래 나 혼자이다.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도 안된다. 사람은 스스로 서야 한다. 공자가 서른 살이면 서야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삶의 눈맞치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삶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이 되겠다, 예능인이 되겠다는 것도 좋은데 류영모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데 귀한 말을 하였다.

인생의 목적을 하늘[한얼님]에 두어야지 이 땅에 두어서는 안된다. 삶의 참뜻은 하늘에 있지 여기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땅에 먼저 한다. 이 세상에는 가질 목적이 없다. 모두가 중간에 희망을 걸어놓고 거기에 다다르면 만족한다. 그래서 안된다. 우리는 이 땅 여기에 붙들려 매였으므로 영원한 열생명의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 천원정(天遠征) 곧 하늘나라로 원정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원정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우주정신(The sprit of Universe)인 한얼님[닐바나님]의 뜻으로 태어났고 한얼님의 품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못 배운 사람은 못배워서라는 핑계라도 있지만 배운 사람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하긴 우주정신인 한얼님을 가장 잘 알은 석가, 예수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한얼님을 알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죽기로 생각해서 **참나**인 한얼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

9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 레프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다도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에서 한얼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아 알았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한얼님은 바로 알은 한얼님이 아니다. **제나**로 죽고 **얼나**로 깨어 한얼님을 만나야 한얼님을 바로 안다. 한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난 이는 지식의 논문이 아닌 지혜의 말씀을 한다. 프란야 바라미타(prajna paramita) 곧 닐바나님께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내놓아야 한다.

아버지가 낳은 **제나**(몸내로 살고 있는 이는 삼독(三毒)의 수욕(獸慾)으로 싸우(투쟁)고 즐기(향락)면서 살아간다.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 짐승노릇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향락의 역사다. 투쟁으로 시산혈하(屍山血河)를 이루는가 하면 향락으로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아귀지옥의 세상인 것이다. 그래서 칼라일은 “인류역사는 싸움과 전쟁의 역사이

다.”라고 하였으며 류영모는 “향락을 위주(爲主)하는 이놈의 세상은 멸망을 자청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순진한 신학자들은 진(眞)·선(善)·미(美)하신 한얼님이 이런 죄악된 세상을 만드셨으니 한얼님의 진·선·미 하심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여 고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얼님이 죄악된 중생을 속죄시키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어 죽게 하여 그 피를 흘린 것이 한얼님께서 자비하신 사랑 때문임을 믿으면 모든 죄를 대속받는다는 교리를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한얼님이라면 그 이상 잔인한 아버지 한얼님이 어디 있겠는가? 한얼님을 모욕하는 도그마이다.

삼독의 수욕을 부리며 사는 짐승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인 종족보존을 탈없이 잘하고 있다. 짐승들은 삼독의 욕망조차 본능적으로 필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으며 수정의 목적 밖에 교미를 하지 않는다. 짐승들에게 강간이란 없다.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짐승들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옛날에 있었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열어 원주민을 치료한 슈바이처가 거기서 세계 제2차대전을 맞았다. 원주민에게 전쟁을 설명해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 먹지도 못할 터인데 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한얼님이 사람에게는 짐승들과는 달리 판단하는 이성(理性)과 추리하는 사고(思考)의 능력을 주었다. 그리하여 수욕을 이익되게 쓰도록 한 것이다. 탐욕에 부지런함을, 투쟁에서 용기를, 애육에서 사랑을 배우게 한 것이다. 추리하는 사고력으로 생명의 근원이요, 존재의 근원인 우주이며 우주정신인 한얼님을 생각해 찾아오게 한 것이다. 한얼님 아버지를 찾아오게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찾아올 수 있게 하였다면 찾아오는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가 말한 루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에서 한얼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 이 탕자 이야기가 불경인 『법화경』에도 있는 것이 또한 놀랍다. 이 인류가 지금 가출한 탕자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면 된다. 언젠가 마음을 돌이켜 한얼님 아버지를 생각하여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 믿고 보자. 회심한 탕자인 류영모의 말을 들어본다.

우리가 뭐라고 이 짐승인 우리에게 위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인 **얼나**를 주시어 한얼님 아들 노릇을 시키시니 이게 정말 사랑 아닌가. 우리가 **얼나**로는 한얼님으로부터 아들의 사랑을 받아 한얼님의 아들이 된다. 한얼님 아들이 된 얼을 느낌으로 한얼님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아마 석가와 예수도 이것을 느낀 것 같다. 한얼님 아들은 한얼님 아버지의 소리 없는 소리를 귀 아닌 맘이 듣는다. 무한히 퍼져있는 허공과 영원히 이어진 시간으로 해서 한얼님의 뜻이 있음을 느낀다. **얼나**가 한얼님 아들 노릇 하라는 그 소리, 한얼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그 소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의 뜻이 활동하는 그 소리가 맘속에 들린다. 이 맘속에서 자꾸만 한얼님의 뜻이 일어난다. **얼나**의 삶은 더없는 기쁨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세계사적인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가 참으로 귀한 말을 하였다. “인류 역사의 문화는 문화의 핵인 진리를 드러낸 종교 발달에 있다.” 토인비의 이 말도 죄악된 인류 역사에서 소중한 것은 우주정신의 임자인 한얼님의 뜻을 드러낸 진리의 사람 곧 성현(聖賢)들의 진리정신에 있다는 것이다. 토인비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도 무시하였다. 보다 깊은 진리의 고등종교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미래의 고등종교가 나올 장소까지 예측하였다. 아세아의 극동지역과 인도라고 말하였다. 류영모는 고등종교의 실체를 예시하였다.

온통(절대존재: 한얼님: 날바님)인 한얼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이라는 수욕(獸慾)을 지닌

제나[몀나]가 아닌 한얼님으로부터 받은 **얼나**로는 나와 한얼님이 한 생명이다. 이 **얼나**가 참으로 더없는 **참나**이다. **얼나**는 대적(對敵)이 없는 나라 남과 싸우지 않고 놀리지 않는다. 이 **얼나**를 모르고 어머니가 낳아준 **제나**[ego]밖에 몰라 삼독의 **제나**를 나로 내세운다. 삼독의 **제나**는 온 세상을 잡아먹고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른콩 먹고 배터져 죽는 소꿌이 된다. 사람은 분명 욕심 많고 잘 다투고 음란한 짐승 이하의 짐승인데 **제나**를 죽여 짐승 노릇을 생각하지 않음이 **얼나**로 솟나는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이것은 이미 석가와 예수가 심신으로 체험하였고 말씀으로 증언한 바이다. 예수보다 5백여 년 앞서 석가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리하여 **얼나**를 깨달은 붓다가 되었다.

비구여, **몀나**를 싫어하고 욕심을 없애며 모든 번뇌를 꺼버려 맘이 자유로우면 이것을 일러 비구가 **얼나**[Dharma]를 **참나**임을 깨달아 **닐바나**(Nirvana)님에게 이른 것이라 한다.
(『잡아함경』 제1권 28 「열반경」)

예수도 석가와 같은 생각을 하였으며 **제나**를 버리고 **얼나**를 참나로 깨달아 한얼님 아들의 권능을 얻었다.

사람이 **얼나**로 솟나지[거듭나지] 아니하면 한얼님 나라를 알 수 없다. 사람이 한얼님께서 내려주시는 **얼나**로 솟나지 못하면 한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몸에서 난 몸은 **제나**[몀나]요, 한얼님[얼]으로부터 난 것은 **얼나**라 내가 네게 **얼나**로 솟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라.

(요한 3:3-7, 박영호 의역)

2천년 전에 만들어진 한자도 배타적인 **제나**는 창을 든 我(나 아) 자를 쓰고 서로 상통하는 **얼나**는 말로 생각을 상통하는 뜻글자인 곺(나 오)자를 쓴다. 맘에 我를 품은 이는 미혹(迷惑)하고 맘에 곺를 품은 이는 깨달음[悟]을 이루었다. 이렇게 문자로까지 상식화한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감잡이로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甦(거룩할성)자는 한얼님의 말씀에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예수와 석가가 바로 온전한 성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석가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이다.

성자(聖者)는 누구냐 하면 물욕(物欲)에 빠지려는 나로 하여금 물질을 깨끗이 차버리고 마음을 거룩하게 해보자는 이가 성인이다. 한얼님이 내려보내는 얼을 받아 자꾸 생각을 깊게 하여 한얼님의 나라를 이룩해 보자는 것이 성인이다. 한얼님은 없다고 하는 이 또 내 위에 누가 있으랴고 하는 이는 지각(知覺)이 없기로 마치 철없는 사람 같다. 제 머리가 가장 위인 줄 알고 제 맘대로 일을 저지르니 하는 일마다 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땅에 어머니가 낳아준 **제나**[몀나]는 죄악되고 거짓된 것으로 **참나**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참 앎이 아닌 거짓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껏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참[얼]이다. 참은 생전(生前)을 두고 찾아야 한다. 일생뿐만 아니라 대(代)를 이어가면서 찾아야 한다. 온 인류가 모든 힘을 쏟아서 마침내 알아내야 할 것은 참 하나이다. 참은 절대자인 한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데서 가까워진다. 참은 한얼님의 뜻이요, 얼이다. 그러므로 참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다. 참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은 거짓 나인 **제나**[ego]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참을 찾을 때만 존속될 것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한얼님은 무한한 허공과 영원한 시간과 무소부재(無所不在)한 성령(얼)이 한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한얼님 아버지는 만유(萬有)보다 크시다.”(요한 10:29)라고 하였다. 만유(萬物)보다 큰 것은 가장자리 없는 무한 허공인 것이다. 한얼님이 성령인 것은 2천5백년전, 석가의 마음속에 성령이 나타났듯 2천년 전에 예수의 맘속에 성령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2천년 뒤에 다석 류영모의 마음에 한얼님의 성령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얼님의 생명인 얼(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안계시는 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복음서에 특별한 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모든 잘못과 비방하는 욕설을 하여도 용서함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얼)을 업신여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마가 3:28~29, 박영호 의역) 한얼님 아버지로부터 얼생명을 받아야 멸망의 생명인 제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 솟날(거듭날) 수 있는데 한얼님의 얼생명을 모르고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 솟날 수 있겠는가?

예수가 얼마나 한얼님으로부터 받은 얼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시 하는가를 본다. 예수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사람들로 부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 왔다고 하리만큼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나라에 속하였느니라.”(요한 8:23, 박영호 의역) 아래서 났다는 것은 땅에 어머니의 탕집에서 났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 자신은 위에서 났다고 하였다. 위에서 났다는 것은 한얼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의 몸나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탕집으로 났다는 것은 복음서에 뚜렷이 적혀 있다. 예수는 어머니 탕집으로부터 온 몸나는 참나가 아닌 거짓 나라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한얼님으로부터 보내져 온 얼나를 참나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느 사람들은 어머니의 탕집으로 태어난 몸나 밖에 모르니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단정해 말한 것이다. 예수 자신의 몸나도 아래로부터 난 것을 알지만 참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없는 일로 친 것이다. 그래서 참나로 인정하는 얼나는 한얼님으로부터 받은 얼나이라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길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에게 이르기를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소이다.”라고 외치자 예수가 그 말을 듣고 대꾸하기를 “아니다. 오히려 한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누가 11:27~28)고 말하였다. 예수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한 것은 예수의 나는 얼나라 한얼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르기를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에서 나는 당연히 예수의 몸나가 아닌 얼나이다. 예수가 참나가 아니라고 부정한 몸나를 한얼님의 성령으로 임신하였다느니 죽은지 사흘만에 죽은 몸이 살아났다느니 한 것은 빈말이다. 류영모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자는 것도 멸망이라고 말하였다. 년 동안이라는 긴 결사적인 수행 끝에 제나(몸나, ego)가 거짓 나임을 확인하자 제나 너머에 영원한 생명인 얼나(Dharma)를 깨달아 샤카(석가) 붓다가 되었다. 괴로운 몸 모인 맘의 제나(ego)를 없애므로서 우주정신(한얼님)인 날바나님이 보내준 영원한 생명인 얼나를 깨달아 생사에 걸린 제나에서 자유롭게 되니 곧 해탈(목사)한 것이다.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니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四聖諦)이다. 석가 붓다는 그를 좇는 제자들을 데리고 출가 전에 살던 가비라성으로 돌아와 혈연의 가족들을 만났으나 담담하였다. 인사만 나누고 자고 나서는 바릿대를 들고 성안에 공양을 얻으려 다니었다. 이것을 안 아버지 정반왕이 달려와 결식하는 아들을 꾸짖었다. 집에 양식이 없나 어찌하여 이렇게 문전결식을 하고 다니는가? 우리 샤카(석가)족에는 거지라고는 없었다. 이렇게 샤카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석가 붓다의 입에서 깜짝 놀랄 소리가 나왔다. 나는 샤카족이 아니고 날바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붓다 계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버지께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인 것이다. 5백년 뒤에 온 예수가 땅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라고 한 예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된 생각인 것이다. 예수도 얼나로는 한얼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석가 붓다도 80세에 죽으면서도 얼나(Dharma)로 생로병사를 여의었다고 한 것은 거짓인 몸나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석가 붓다는 내 몸을 보는 이는 붓다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붓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얼나인 것이다. 그래서 석가 붓다의 얼굴 모습을 그리는 것도 금지시켰다. 그리하여 이른바 무불상

불상(無佛像) 시대가 5백년 동안이나 지켜져 왔다.

그 뒤로 **얼나**의 깨달음은 쇠퇴하고 기복신앙으로 전환되면서 불상도 모자라 아미타불 비로자나 불에 여러 보살이 등장하여 절간을 채우게 되었다. 석가 붓다가 오늘날에 와서 불교를 본다면 이게 나의 가르침인가 하고 돌아설 것이다. 석가 붓다의 닐바나님의 다르마(얼나) 신앙은 적멸보궁(寂滅寶宮)에서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적멸보궁이란 글자 그대로 닐바나님을 모신 보궁이란 뜻이다. 석가 붓다는 여인들의 출가를 받아들이면서 이 때문에 바른 진리가 일천년 전해갈 것이 5백년 밖에 못 전해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석가 붓다가 예측한 대로 불교가 다르마(Dharma)가 빠진 아미타불교가 되었다. 달마대사가 동쪽에 온 것은 다르마불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였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온전히 바르게 전파되기를 바랄 수 있는 처지가 못되었다. 많지 않은 제자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터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예수가 깨달은 영원한 생명인 **얼나**에 대한 믿음은 털끝도 흔들림이 없었다. 예수의 열정신은 2천년이 지난 오늘에 더욱 빛나고 있다. 자칭 사도 바울이 예수의 「**얼나**」 신앙을 이단으로 저주하였으나 건드릴 수 없었다.

제나로 죽고 **얼나**를 깨달은 이는 예수와 석가가 깨달은 **얼나**가 한얼님(닐바나님)이 주신 한 **얼나**임을 안다. 이를 아는 이는 **얼나**로서는 예수와 석가가 다른 생명이 아닌 것을 안다. 그래서 예수와 석가를 한 생명으로 사랑한다.

류달영의 말을 들어본다.

크리스천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못지 않게 석가모니를 우러러 배운다. 석가 붓다는 부귀공명의 모든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가비라성 왕궁을 가족들 몰래 탈출하였다. 가족은 물론 본 인의 생명 보다 진리정신을 찾는데 맘과 뜻을 다 하여 자아를 초극(超克)하여 영원한 진리 정신인 다르마를 깨달아 위대한 얼의 스승이 된 붓다이다.

(류달영, 『인생의 열쇠 꾸러미』)

류영모 말을 들어본다.

얼나는 보이지 않지만 **얼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얼나**는 예수의 **얼나**, 석가의 **얼나**, 나의 **얼나**, 한얼님(닐바나님)의 **얼나**가 한 생명이다. 눈은 눈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것을 봄으로 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얼나**는 얼을 볼 수 없지만 진리의 생각이 솟아 나오니까 얼이 있는 줄 안다. 거룩을 생각하는 것이 **얼나**가 있다는 증거이다. **얼나**가 없다는 것은 자기 무시요, 자기 모독이다. **얼나**가 있으면 한얼님(닐바나님)도 계시는 것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결국은 한얼님이신 **얼나**와 그가 보내주신 나의 **얼나**가 만나는 것이다. 이를 견성(見性)이라, 현존(現存)이라, 회개(悔改)라 한다. 예수의 현존을 들어본다

나(**얼나**)를 보내신 이는 잠얼이시니
너희는 그(한얼님)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얼나**)가 그(한얼님)에게서 났고
그(한얼님)가 나를 보내시었다.

(요한 7:28~29)

나(**얼나**)와 아버지(한얼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 10:30)

한얼님 아버지께서 내(**얼나**) 안에 계시고
내(**얼나**)가 아버지(한얼님 아버지) 안에 있을
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 10:30)

또 석가의 현존을 들어본다. 우주의 근원으로 원초적인 무(無)인 한얼님을 석가는 닐바나님 이라고 하였다.

나의 진리 곧 **얼나**는 생노병사(生老病死)를 능히 떠난 절대(한얼)의 날바나(Nirvana)님이시다. 이를 배우지 못한 이도 배워서 제각기 **제나**[自我, ego]와 유무(有無)의 생각을 버리고 날바나님을 맞으라.

(『법화경』 「비유품」)

나의 생각의 능력은 넓고 커서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또 나는 보지 못한 곳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날바나님만을 가장 잘 알고 또 기뻐하고 있다.

(『대반열반경』)

중생은 **얼나**[다르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에 빠져 생사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만일 **얼나**를 깨달으면 생사를 벗어나 날바나님께 이를 것이다.

(『대반열반경』)

예수와 석가는 이처럼 우주이며 우주의 임자이신 한얼님[날바나님]을 내 생명의 임자인 한얼님 아버지로 또는 날바나님으로 그리며 사랑하여 한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류영모, 예수, 석가 밖에 사람들은 한얼님[날바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온통(한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절대를 그리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중간에다 희망을 걸어놓고 그에 맞는 진(眞)·선(善)·미(美)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다르면 만족해 버린다. 그러나 예수 석가 같이 인생을 깊숙이 보는 이는 절대(한얼님) 밖에는 괴롭히고, 잘못으로 본다. 예수 석가는 영원 절대(한얼님)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새벽에는 높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높은 생각을 가지기 어려워진다. 낮엔 몸살림에 빠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낮은 이 땅을 떠나 영원 절대(한얼님)로 올라가야 한다. 맨꼭대기 절대로 가는 거다. 참(얼) 자리로 가는 것은 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다. 제자리를 회복하는 거다. 새로 뭐 되는 게 아니다. 영원 절대(한얼님)만이 우리의 신(信)·망(望)·애(愛)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류영모는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이 지은 시 ‘오 늘’을 좋아하여 32세에 오산 정주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그 시를 가르쳤다. 그때 졸업반 학생이었던 함석헌이 교장 선생 류영모에게서 그 시를 배웠다. 류영모는 뒤에 ‘오! 늘!’이라는 한얼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말로 썼다. ‘오’는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의 한얼님을 아들이 만나 놀라는 감탄사이다. ‘늘’은 영원으로 한얼님을 부르는 소리다. 날마다 ‘오! 늘!’이라 감격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사람은 언제나 영원한 당신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아들 노릇을 한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이다. 늘[영원]의 아버지를 첨망(瞻望)하는 것이 아들의 일이다. 영원한 하나[절대]의 임[님]이 없는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한얼님 사랑에 무슨 연습이 있단 말인가? 하나에 무슨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하나’의 계심을 바로 계신 자리에서 느낀다. 이 ‘하나’밖에 다른 것은 없다.

나는 **참나**[眞我]라는 ‘하나’의 증인이, 절대 존재인 그 ‘하나’가 내 맘속에 계시니 나에게 사람의 사명을 주신 분이 곧 그 ‘하나’이다. 나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 ‘하나’의 아들이 된다. 그 ‘하나’의 아들이 된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의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

아마 예수 석가도 이것을 느낀 것 같다. 아들은 그 ‘하나’의 소리 없는 소리를 귀 없는 마음 이 듣는다. 무한한 허공과 영원한 시간으로

해서 '하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이 사람은 느낀다. 아들 노릇한다는 그 소리, 그리고 아버지로 계신다는 그 소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뜻이 활동하는 소리가 맘속에서 들린다. 내 맘에서 자꾸만 '하나'의 뜻이 일어난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내 뜻이다. 맘의 뜻은 '하나'의 뜻이다.
 '하나'는 온통의 큰나[大我]요 참나[真我]로 한 열님이시다.

(류영모 『다석어록』)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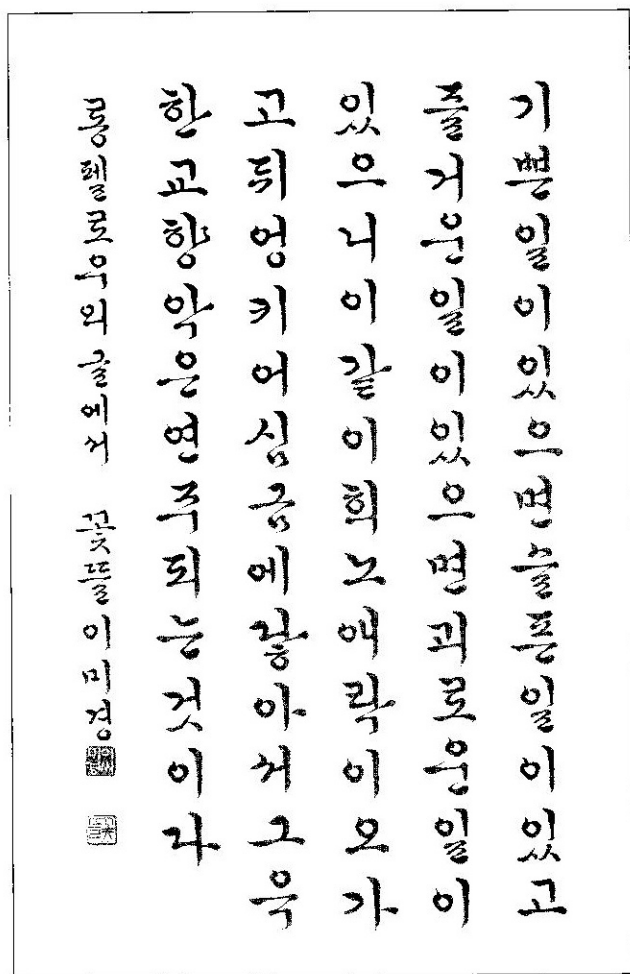
반짝하는 삶이어니
 부지런히 사울 것이

단 한번인 삶이어니
 으젓이 사울 것이

영원의 삶이웁도록
 참되이 사울 것이

이 겨레 흥망의 날에
 더욱 그러하올 것이

1944. 8. 북한강 가에서 성천 류달영 지음



「루펠로우(1807~1882, 미국 시인)의 글」, 52X33.5cm, 꽃뜰 이미경(1918~)의 글씨(1995)